

전 강 상 담 실

담당의사 박 인 규
<한국기생충 박멸협회 부설의원>

독자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기생충질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문의 이외에도 일반질환에 대한 문의도 환영합니다. 의료계 권위자와 상담하여 지도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대변검사결과 간디스토마에 감염되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재검사는 어떤 곳에서 하여야 되는지요.

치료 방법과 구충제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남 창원군 김용하)

【진료】 간디스토마는 민물고기를 날로 먹거나 덜익혀 먹을경우 감염되는 기생충으로 기생부위가 간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기생충질환입니다.

귀하는 앞으로 민물고기를 회로 먹음으로 인하여 더 심한 간디스토마질환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떤 기생충이나 인체에 감염되면 기생부위 및 기생충수의 다과(多過)에 의하여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습니다.

소수 감염되는 경우는 인체에 미치는 해는 그다지 대단한것이 아니므로 치료약을 복용하는 것 보다는 더 많은 충(蟲)의 재감염이 되지 않도록 예방(민물고기의 생식을 금함)에 적극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다수(심한) 경우에는 인체

에 미치는 피해가 크고 따라서 여러가지 증상이 나타나므로 전문의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좀더 확실한 기생충 감염정도를 알기 위해서는 E.P.G. 검사(충란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를 배출란 양수로 표시하는 정량검사)를 하여 간디스토마의 많고 적음을 알아본후 증상과 귀하의 건강상태를 판단한 다음 치료여부를 결정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치료약으로는 현재 만족할만한 구충제가 없으며, 치료약이 있다하더라도 부작용이 심하기때문에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E.P.G. 검사를 원하신다면 검사에 필요한 신선한 변을 밥알크기(5g정도)만큼 비닐봉지에 넣고 완전히 밀봉하여 인근 큰 병원이나 본협회 경남지구(부산직할시 동래구 온천 2동 574-2)로 보내주시면 검사를 하여 드립니다.

E.P.G. 검사를 하여 배출되는 충란의 수에 의하여 감염상태의 경중을 확실히 안후에 치료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